

Yvonne Kim's mother testimony

지난 5년을 P2P와 함께하면서...

P2P와의 인연은 세 아이의 버디 엄마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한국에서 맞벌이로 세 아이들과 늘 바쁘게 지내다 남편의 일로 1년동안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원 뱅뱅이에 지친 아이들을 데리고 황금 같은 1년을 어떻게 해야 잘 보낼까 생각하다, 미국에서는 공부 사교육은 하지 말고 미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롯이 시간을 보내자고 가족들이 의기투합 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상과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이 한국 분이셔서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강당 같은 큰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은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형이나 누나와 부모와 의논할 수 없는 미국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편하게 한국말도 하고 공부도 배울 수 있는 1석 3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은 이 때의 좋은 기억으로 봉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세 아이들은 오자마자 P2P 등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헬퍼로 작은 아이들은 버디로 반가운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죠.

연수는 버디였을 때의 좋은 기억을 안고 첫 헬퍼 1년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아파도 한 번의 결석없이 열심히 했어도, 1년을 보낸 후 스스로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헬퍼가 되려면 다소 수줍은 성격도 고쳐야 할 것 같고, 티칭 스킬도 길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공이 방법을 찾던 연수는 P2P에서 하는 헬퍼를 위한 세미나도 참석해서 팁을 얻고, 다음 해는 본인이 버디가 되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헬퍼의 역할을 해보고 버디가 되어보니,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를 더 잘 깨닫게 되었고 버디의 마음도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해 다시 헬퍼를 하면서는 1년동안 한 친구를 맡아, 버디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무척 뿌듯해 했던 좋은 기억이 납니다. 누나의 성장을 지켜보던 동생들도 버디로서 헬퍼로서 P2P와 함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슈퍼바이저로 오랜 시간을 지켜보니 저절로 주변에 P2P프로그램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P2P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연수 또래의 많은 친구와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혹은 본인의 아이들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타고난 성격과 훌륭한 티칭 감각으로 헬퍼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성공담을 많은 헬퍼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 연수 또래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이끄는 데 경험이 부족한 것이 자연스러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스킬을 발전시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P2P에서 그 시작을

해보라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P2P**는 학업적 성공만을 바라는 기관이 아니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다른 기관보다 아이들의 이런 부분의 성장을 위해 세심한 신경을 쓰는 프로그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성격과 생각의 방식으로 타인과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의 경험, 타인을 이해하는 관계의 경험, 누군가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본 인성을 키워가는 경험 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키우며 잘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 출발은 누구나 서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끄럼쟁이 저희 아이가 몇 년을 이어 헬퍼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훌륭한 헬퍼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주 조금씩 본인이 이런 점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다른 친구들도 특히, 저희 아이처럼 수줍음이 있고, 다른 친구와 관계 맺는 것에 시간이 걸렸던 친구들에게 **P2P**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슈퍼바이저로서 제가 지켜보기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과 함께 많은 실수를 통해 본인도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